



“영어도 잘 생활도 서툴지만 재밌어요”

강화 연등국제선원 '청소년 다도 및 참선 체험 영어캠프' 현장



항공수련



인제식기법사진



다도실습



참선수련

연등선원은 미래 한국불교의 주역인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불교문화를 영어로 체험하게 하는 기회 제공은 물론 자립정신과 협동심 배양을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청소년 영어캠프'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영어로 주지 스님이 필요요?” “abbot.”
 “법복은요?” “buddhist custom.”
 강화 연등국제선원(선원장 원유)에서 1월 8~12일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청소년 다도 및 참선 체험 영어캠프' 첫날, 영어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22명의 남녀 초·중등생들이 영어 지도를 맡은 릴리(미국·26)선생님의 질문에 유창하게 대답한다. 4박 5일(2차 1월 15~19일, 3차 22~26일, 4차 27~3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영어캠프는 참선 및 다도 체험, 항공(종교, 베트남 불가 기공술), 발우공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영어캠프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출발 전 걱정반 기대반
 1월 8일 오전 11시 조계사 앞, 영어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초·중등생들이 연등국제선원 영어캠프 행 버스 안에서 서먹서먹하게 앉아 있다. 릴리 선생님이 버스 안에서 22명의 참가자들에게 4박 5일간의 일정을 영어로 간략히 설명한다. 어떤 아이들은 걱정이 역력한 눈빛이고 또 어떤 아이들은 산사에서 영어캠프가 기대되는지 릴리 선생님에게 “외국인 선생님은 몇 명인지?” “어떤 프로그램이 재밌을지?” 등 이리저리 질문공세를 퍼붓는다.
“어디서 왔느냐?” “I don't know”
 연등국제선원에 도착한 아이들은 점심공양을 한 후 오후 2시 오리엔테이션에 들어갔다. 오리엔테이

션은 아이들의 수준별 반편성을 위한 것. 영어지도 자원봉사자 크리스(독일·26), 조예나(27), 로라(스웨덴·25)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영어실력을 체크하기 위해 “어디서 왔느냐?” “이름이 뭐냐?” “취미는?” 등을 영어로 물어 본다.
 정지만(역삼초교6)군은 쑥스러운지 고개를 연신 저으며 “I don't know(잘 몰라요).”를 연발한다. 박서희(아탑초교3)양은 “취미는 독서고 장래희망은 선생

참선 10분 만에 “그만 해요!” “축지법 알려달라” 조르기도 5일의 체험 학교생활에 ‘적용’

남”이라는 내용의 자기소개를 원어인 수준의 영어실력으로 발표해 갈채를 받기도 했다.
가부좌 들고 힘들지만 꼭 참고 참선
 “참선은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의 하나이며 세상을 밝히는 마음공부입니다. 자! 이제 눈을 지그시 감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보세요. 숨은 천천히 배로 들이 마시세요. 아때요? 마음이 편안해 지는 게 느껴지나요?” 러시아 출신 일조 스님이 아이들에게 참선을 지도하는 모습은 부드러운 가운데도 엄중함이 느껴진다. 마냥 장난꾸러기만 같았던 아이들의 얼굴에서

사문 짓집이 묻어났다. 아이들이 가부좌를 틀고 참선에 들어 간지 10분이 지났을까. 그새를 못 참아 다리가 저러오고 숨쉬기가 답답하다며 “그만 하면 안 되요?”라며 이번 영어캠프의 막내 최소영(당현초교 2)양이 울먹인다. 일조 스님은 “가부좌가 힘들면 양반다리를 하라”며 20분만 더 견뎌볼 것을 권유한다. 30분간의 참선이 끝난 후 “어땠느냐?”고 질문하자 강민수(우신중3)군은 “힘들지만 할만 하던데요 뭘. 옆에 있는 친구가 저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지 않으려고 더 꼭 참고 했어요”라며 해냈다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베트남 기공술 항공(종교) ‘인기 팽’
 이번 캠프의 ‘인기 팽’ 프로그램은 단연 ‘항공’. 항공은 베트남과 중국의 불가비전 기공술로 연꽃이 피는 것을 형상화한 일종의 심신 수련법이다. ‘연꽃 일 흔들기’ ‘용포리 흔들기’ 등 총 16개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공을 연마하면 마음을 안정시켜 주고 집중력 강화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항공 지도를 맡은 베트남 출신 운풍 스님은 “기공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부터 충실히 배우려는 자세다”며 “이러한 마음가짐은 4박 5일간의 영어캠프를 마친 후에도 학교 공부 등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장난기가 발동한 김태현(명진초교6)군은 “장풍 스님은 법과 축지법을 알려 달라”며 운풍 스님을 조르기도 해 강의장엔 한바탕 웃음바다가 일기도 했다.

글·사진/강화도-노병철 기자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과학탐구와 날씨

용인전문대에서는 1월 18일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기상청 견학, 별자리 강의, 별자리 관측, 행성 탐험 입체 영상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02)577-3856

국립극장 문화학교

국립극장 문화학교에서는 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야금병창, 고전무용, 판소리, 민요 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월 31일까지. (02)2277-3431

어린이 허준교실

허준박물관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허준교실’을 연다. 1월 18일과 25일 두 차례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의학 유물 관람, 동의보감 체험(총명환, 한방·과자 만들기) 등으로 진행된다. (02)3661-8686

강남대성 무료 윈터스쿨

온라인 입시 사이트의 대명사 ‘마이맥스터디(mimacstudy.com)’에서 무료 윈터스쿨을 연다. 이번 윈터스쿨은 언어·수리·외국어·통합논술로 구성된 수험생 대상 강좌로 총 7주 분량이다. 또 1월 한달 동안 ‘도전 100만원 장학금’과 ‘2008 대입 상담’ 행사도 실시한다. 1544-2300

청소년 스키캠프

서울시립 금천청소년센터는 1월 18일부터 20일 양지리조트에서 ‘청소년 스키캠프’를 실시한다. 금천청소년센터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참석 가능. 무료. (02)3281-8200

동아리 모집

노원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적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 ‘청소년 동아리’ 회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밴드, 댄스, 비보이, 응원 등이다. (02)3391-4141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51로 연락주세요.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캠페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현대불교 인증 캠페인 전개

‘현대불교’가 2007년 ‘새싹불자를 키웁시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1996년 ‘새싹불자를 키웁시다’란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했던 현대불교가 다시 같은 주제의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 현안이 여전히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방지하고는 불교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올해부터 어린이 포교 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새싹 불자 키우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현대불교’ 역시 불교의 미래를 밝게 열겠다는 각오로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캠페인 전용 지면 두개면 마련

‘현대불교’는 매주 2페이지씩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지면을 운영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활기찬 범죄 현장과 각종 활동 현장을 소개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만화, 칼럼 등의 연재를 통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종립학교에 ‘현대불교’ 보내기

현재 불교계 종립학교는 30 곳이며 총 학급 수는 760 개에 이릅니다. 가장 가까운 포교

마당인 종립학교 교실마다 ‘현대불교’를 보내 어린이·청소년들을 불교와 보다 친근하게 인연을 맺어주도록 합니다. 또 각 종립학교의 교장·교감 선생님과 교부사, 도서관, 불교 동아리 등에서도 ‘현대불교’를 매주 만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립 종교교생 눈물 경시대회

눈물이 입시의 최고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종립 종교교생들의 눈물 기량을 높이고 불교의 교리와 사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눈물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하는 눈물 경시대회를 개최해 종립학교 학생들의 학업을 돕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험 압박감에 시달리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특별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자비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강의해 주목받고 있는 마가 스님(천안 만일사 주지)이 2월 10일과 11일, 24일과 25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자비명상’을 진행합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불자들이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의 02-2004-8237)

희망의 템플스테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사찰에서 며칠 묵으며 각종 문화와 수행을 체험하는 것은 인생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현대불교’는 방학을 이용해 보다 알차고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열겠습니다.

※사찰에서 산사 음악회, 각종 행사에 초청해주시면 공연상담을 해드립니다.




네팔은 다양한 자원의 아름다움을 가진 나라이며, 신과 여신의 나라이다.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아래에 위치한 나라이며, 네팔은 “식가모니 붓다”의 탄생지이다. “네팔 정부”와 “네팔 국제문화교류 그룹” 지원하며, 한국 “국제 문화회” 주관하는 행사임. 나라와 나라사이의 문화를 보호합니다.

· 초창공연시간 A타입 70분
B타입 100분

부처님 성지 “룸비니 동산” 보존, 복원 및 티베트 불교 난민 돕기 공연

◇ 일시 : 양력 / 2007년 4월 15일 - 6월 30일 (75일간)
 ◇ 초 청 : 한국 국제문화 교류회, 불교상조 (국인상조)
 ◇ 후 원 : 네팔정부, 네팔 문화관광청, 네팔 국제문화교류협회
 ◇ 네팔 정부지원의 국립무용단 공연상담 (직통 : 남광일/ 국제 문화교류회)
 TEL : 011-1714-8851 / 011-581-8851 FAX : 02-441-8851
 E-mail : chs541013@hanmail.net




National Literary and Art Festival 2007